프리즘

외래어 표기법 有感

洪池雄 열린책들 대표

책 한권이 나오기까지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글자 한자한자마다에 배어 있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손길을 생각하면 한권한권의 책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편집자는 언제나 '무결점의 책'을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편집자는 문장 하나하나, 맞춤법, 표기법, 띄어쓰기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외국어 고유명사의 표기이다.

'열린책들'의 경우는 러시아어의 인명과 지명은 러시아어의 음성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데, 간혹 영어식 표기법에 따라 표기된 책을 보면 모순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 오류 중 대표적인 것이 '피터스버그'라는지명인데, 이도시는 뾰뜨르大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뾰뜨르의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도시명은 혁명전에는 쌍뜨뻬쩨르부르그로, 혁명후에는 레닌그라드로, 스딸린 시대에는 스딸린그라드로 불렸고 오늘날에는 다시 레닌그라드라는 명칭을 되찾은 그야말로 정치적·시대적 영욕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 도시의 19세기 명칭을 어떤 책은 '聖피터스버그'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얼토당토않은 오류이다. 이와 같은 표기법에 따른다면 샌프란시스코도 '聖프란시스코'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출판사에서 낸 책들이 기사화되는 것을 보면 모두 영어식 표기로 바뀌어져 있다. 표기법의 채택과 적용은 바로 그 출판사와 편집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심한 경우 책의 제목까지 영어식으로 둔갑되어 보도되는 것을 보면 어리둥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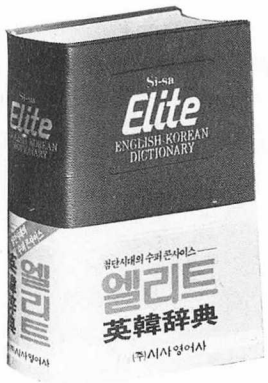
한권의 책이 출판되어 독자 앞에 놓여지는 순간부터 그 책은 그 책 나름의 인격적 독자성을 획득하게 된다. 말하자면 '아르바뜨의 아이들'과 '아르바트의 아이들'은 서로 다른 독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東亞日報'와 '동아일보'는 엄연히 서로 다른 신문명이며 '도스또예프스끼 全集'과 '도스토예프스키 全集'과는 천지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인명과 지명은 그 나라 언어의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 교황 바오로 Ⅰ세는 죤 바오로 Ⅰ세가 아닌 요한 바오로 Ⅰ세이며, 심리학자 Freud는 프로이드가 아닌 프로이트이며, 철학자 Platon은 플레이토가 아닌 플라톤이다. '피터스버그'는 뻬쩨르부르그이며, 고리키는 고리끼이다.

우리는 마땅히 러시아의 저자와 책명이 하나의 독자성을 부여받은 채 러시아식으로 표기되고 그렇게 보도되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편집자의 인격과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10월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50호(10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주)시사영어사에서 펴낸 「엘리트 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1

조선 영·정조 때의 학자 李肯翊이 저술한 것으로 조선왕조시대의 야사를 정리한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 59권으로 이뤄진 방대한 저술로, 책의 제목에 그의 호를 따다 붙였다.

1. 燃藜室記述
2. 大東野乘
3. 稗林

문제2

朴龍喆, 金永郎, 鄭芝溶 등이 중심이 되어 1930년 3월에 창간한 詩동인지의 이름은 무엇인가.

1. 장미촌
2. 창조
3. 시문학

문제3

조선 명종 때 나온 불교개론서로서 禪과 敎의 정의, 禪宗五家의 설명 등이 수록된 「禪家龜鑑」의 저자는 누구인가.

1. 休靜
2. 元曉
3. 義湘

문제4

영국 작가 스위프트가 지은 「걸리버여행기」는 난장이나라, 거인나라, 공중에 뜬 섬, 그리고 말의 나라를 거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당시의 정치·사회를 풍자한 소설이다. 여기에서 속악한 짐승으로 전락한 인간 위에 군림하는 이성적 존재로 등장하는 말의 이름은 무엇인가.

1. 릴리펏
2. 후이넘
3. 라퓨터

제46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6호(8월20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98통, 이중 정답은 95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①임진왜란

「南海讚歌」(1952. 남광문화사)는 특히 언론인 薛義植의 서문이 들어 있어 더욱 유명하다.

2. ①사씨남정기

숙종이 장희빈에게 미혹되어 인현왕후를 폐출한 것을 풍자하여 쓴 소설로, 양반에 의해 처음 한글로 씌어졌다는 점에서 국문학사상 의의가 크다. 金萬重이 뒤이어 쓴 「九雲夢」 역시 한글소설이다.

3. ②詩文集

「古文眞寶」는 모두 20권으로 이뤄졌으며 편자는 분명치 않다. 현재 국역본이 나와 있다.

4. ③「성 앙트완의 유혹」

모파상은 「기름덩어리」를 발표하여 프랑스문단에 등단, 프랑스자연주의를 완성했으며, 염세적 성격으로 만년에 자살까지 기도하다 죽었다. 「성 앙트완의 유혹」은 모파상을 지도했던 플로베르의 소설.

당첨자

김기영(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144-5 28/2)
박근화(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721동 504호)
강성일(전북 전주시 서서학동 112-3 예그린아파트 나동 311호)
엄정환(서울 마포구 합정동 400-7 A동102호)
문수상(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1436-1 14/4)

출판저널

통권 제48호/1989년 9월 20일 발행

발행인——鄭鎭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주간——李勝羽
편집차장——康鐵柱
기자——金芝媛 權正子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崔兌源 李羲天 崔炳天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진식자사

출판저널——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자문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愼鏞廈 安秉永
安輝濬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鎭弘 鄭丙圭
曺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